

한국어 내핵 관계절의 용인성에 대한 연구

조수근

(고려사이버대학교)

Cho, Sookeun. (2014). A Study on the Acceptability of the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2), 183-19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speakers accept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and to decide whether they are apparently shown in Korean. To achieve these goals, a judgement task constructed on the basis of grammaticality has been conducted on 62 Korean speakers. By following 4 types of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twenty test sentences were created for a quantitative study. The test subjects were asked to decide if the test sentence was correct or not. Their answers indicated the degree of the subjects' knowledge o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by responding either "right" or "wrong" to the ques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Korean speakers correctly judged the grammaticality of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at a rate of less than 70%, suggesting that they accept the existence of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restric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lso showed that dative and oblique nouns are rarely selected as head nouns i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which is consistent with Noun Phrases Accessibility Hierarchy(NPAH) by Keenan and Comrie (1977).

주제어(Key Words): 관계절(relative clauses), 내핵 관계절(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용인성(acceptability), 문법성 판단 실험(grammaticality judgement task),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oun Phrases accessibility Hierarchy)

1. 머리말

한국어에는 범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외핵 관계절(ex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과 함께 동사가 문장 끝에 오는 소위 'SOV 어순'을 갖는 언어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내핵 관계절(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의 두 유형의 관계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핵 관계절은 (1)의 예문과 같이 관계절의 수식을 받으며 핵어명사(head noun)로 불리는 ‘책’과 같은 명사가 관계절 밖에 위치하며, 관계절 안에는 이 핵어명사와 공지시 되는 밑줄로 표시된 공란(gap)이 존재한다.

(1) [영희가 어제 _____ 산] 책

이와 달리, 내핵 관계절은 (2)의 예문과 같이 관계절의 수식을 받으며 밑줄로 표시된 ‘보석’과 같은 핵어명사가 관계절 안에 위치한다. 내핵 관계절은 관계절 안에 공란이 존재하지 않고 관계절의 오른쪽에는 항상 보문소 ‘것’¹⁾이 사용된다. 이 같은 유형의 관계절은 핵어명사가 관계절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내핵 관계절이라고 불린다 (Jhang, 1994:11).

(2) 도둑이 [보석을 훔친] 것은 가짜이다.

통사적으로 한국어의 외핵 관계절은 (3)의 예문들에서처럼 관계화 되는 문장 요소가 주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사격목적어²⁾를 모두 포함한다.

- (3) a. [_____ 책상 위에 있던] 책이 사라졌다. (주어의 관계화)
 b. [소년이 _____ 던진] 공이 멀리 갔다.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c. [아이가 _____ 인사하는] 선생님이 예쁘시다. (간접목적어의 관계화)
 d. [철수가 _____ 공부하는] 도서관이 크다. (사격목적어의 관계화)

이와 달리, 내핵 관계절은 (4)의 예문들과 같이 주어와 직접목적어만이 관계화가 될 수 있어, 문장의 다양한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관계화 되는 외핵 관계절에 비해 관계화 될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다.

- (4) a. [책이 책상 위에 있던] 것이 사라졌다. (주어의 관계화)
 b. [소년이 공을 던진] 것이 멀리 날아갔다.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c. *아이가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쁘시다. (간접목적어의 관계화)
 d. *[철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크다. (사격목적어의 관계화)

1) ‘것’은 전통적으로 ‘물건’을 의미하는 불완전명사로 분류가 되어왔다. 그러나 내핵 관계절에서는 보문소로 여겨진다 (Jhang, 1994; Lee, 1991; Whitman, 1990).

2) 한국어의 사격목적어는 모두 관계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격목적어 중 장소(location), 목표(goal), 도구(instrument)를 나타내는 경우는 관계화가 허용되는데 반해 출처(source), 방향(direction), 탈격(ablative)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계화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어와 직접목적어의 관계화가 허용되는 (4a)와 (4b)의 예문은 각각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사라졌다’와 ‘소년이 던진 공이 멀리 날아갔다’와 같이 해석이 되는데 반해,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의 관계화가 허용이 되지 않는 (4c)와 (4d)의 예문은 각각 ‘아이가 인사하는 선생님이 예쁘시다’와 ‘철수가 공부하는 도서관은 크다’와 같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은 외핵 관계절에 비해 통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미-화용적으로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내핵 관계절에서 관계화가 허용되는 주어와 직접목적어는 (5)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체 명사나 유정 명사로 한정이 된다 (문숙영, 2012: 48).

- (5) a. 나는 [꽃이 피어 있는] 것을 꺾었다.
 b. [어떤 사람이 방에서 나가는] 것을 붙잡았다.
 c. ?그는 [나의 사연이 안타까운] 것을 들어 주었다.

(5a)의 ‘꽃’이나 (5b)의 ‘사람’처럼 문장의 요소가 구체 명사이거나 유정 명사일 때는 관계화가 되어 각각 ‘나는 피어 있는 꽃을 꺾었다’나 ‘방에서 나가는 어떤 사람을 붙잡았다’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5c)처럼 추상 명사인 경우는 내핵 관계화가 되지 않아 ‘그는 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 주었다’와 같은 해석을 갖지 못한다.

내핵 관계절의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의미-화용적인 제한으로 ‘관련성 조건(relevance condition)’이 제안되고 있다 (Chan & Kim, 2003; Kim, 2000, 2002; Kuroda, 1976). 관련성 조건은 내핵 관계절 구문의 종속절과 주절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6)의 예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 (6) *나는 [바나나가 어제 놓여 있던] 것을 오늘 먹었다.

(6)의 예문에서 종속절인 내핵관계절의 ‘바나나가 어제 놓여있음’의 사건은 주절인 ‘나는 그 바나나를 오늘 먹음’의 사건과 시간에서 일치하지 않아 관련성 조건을 위반하게 되고, 따라서 ‘나는 어제 놓여 있던 바나나를 오늘 먹었다’와 같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어에 내핵 관계절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 내핵 관계절은 한국어 성인 화자의 일상적인 구어 표현에서도 나타나므로 한국어 문법에서도 내핵 관계절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어에 내핵 관계절이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사실 한국어와 유형론으로 유사한 일본어의 내핵 관계절은 많은 논문을 통해 일본어에도 존재한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따라서 그 존재가 학술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은 그 존재를 주장하기에 관련 연구가 충분

하지 않으며, 심지어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인이 문법적인 문장으로 쉽게 받아들이려하지 않으며 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 매우 자주 보인다.³⁾

본 논문은 주어진 실험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는 문법성 판단 실험을 이용하여 한국인 화자사이에서 내핵 관계절이 용인이 되는 구문인지 용인이 되지 않는 구문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내핵 관계절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존재 유무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실험에 참여한 한국인 성인들이 한국어 문법에서 가정된 것처럼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법적인 내핵 관계절에 대해 문법적인 것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간접목적어나 사격목적어가 관계화 된 비문법적인 내핵 관계절에 대해서는 비문법적인 것으로 바르게 판단하여 두 그룹의 문법성을 잘 구별한다면 한국인들은 내핵 관계절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내핵 관계절의 존재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모든 유형의 내핵 관계절에 대해 비문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법적인 내핵 관계절과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가 관계화 된 비문법적인 내핵 관계절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 할 것이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실험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여기에는 실험 대상, 실험 문장, 실험 절차,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이 포함되었다. 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마지막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언급하였다.

2. 실험

본 연구를 위해서 피실험자들에게 하나의 설문이 주어졌는데 (부록 참조), 여기에는 주어진 내핵 관계절의 실험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는 문법성 판단 실험방식 (grammaticality judgement task)이 사용되었다.

2.1. 피실험자

이 연구에서는 K 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한국인 성인 62명이 참가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에서 정리된 것처럼, 성별로는 남자가 24.2%(15명), 여자가 75.8%(4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령대는 90.3%가 20세부터 50세 사이였으며, 그 중에서도 30대 학생들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40

3) 개인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로 자주 인용되는 몇 몇의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4명 중의 3명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다.

대가 각각 30.6%와 22.6%로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였다. 50대 이상도 6.5%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다양한 연령대 분포는 사이버대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생교육 차원의 재교육을 원하는 직장인이라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1, 2학년이 16.1%를 차지한 반면 3, 4학년은 83.9%로 비교적 고학년 학습자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이미 대학 교육을 마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3학년으로 편입학한 인원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으로는 인문사회계열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수준 또한 74.2% 이상이 대학 중퇴 이상으로 3학년 편입학이 많음과 연관된다.

표 1. 설문 참가자의 배경 특성

설문내용	결과
1. 총 인원	63명
2. 성별	남자(24.2%), 여자(75.8%)
3. 연령	20세 이하(3.2%) 20대(30.6%) 30대(37.1%) 40대(22.6%) 50대 이상(6.5%)
4. 학년	1학년(12.9%) 2학년(3.2%) 3학년(74.2%) 4학년(9.7%)
5. 전공	인문사회계열 (95.2%) 자연계열 (1.6%) 공과계열 (1.6%) 예체능계열 (1.6%)
6. 학력수준	고졸(25.8%) 대졸 및 대학 중퇴(71.0%) 대학원 졸업 및 중퇴(3.2%)

2.2. 실험 문장

이 실험에서는 총 20개의 내핵 관계질이 실험 문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문장 요소가 관계화 되었는지에 따라 주어가 관계화 된 유형,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유형, 간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유형, 사격목적어가 관계화 된 유형으로 구별된다. 20개의 실험 문장은 이들 4개 유형의 각각에 대해 5개씩 주어진 내핵 관계질을 모두

더 한 것이다 (4 types × 5 tokens = 20 test sentences). 그리고 이들 20개의 실험 문장은 더 크게는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법적인 것들과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가 관계화 된 비문법적인 것들의 2개의 유형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이들 유형은 각각 10개의 내핵 관계절을 포함하게 된다.

(7) a. 주어의 관계화

진수는 [컴퓨터가 고장 난] 것을 고쳤다.

b.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플키피는 [상대편이 꿈을 찬] 것을 잘 막아 내었다.

c. 간접목적어의 관계화

*[아빠가 영희에게 새 옷을 사주신] 것은 매우 기뻐했다.

b. 사격목적어의 관계화

*[엄마가 칼로 사과를 꺾고 있는] 것이 매우 날카롭다.

2.3. 실험 절차와 분석

20개의 실험 문장들은 동일한 유형의 문장들이 연속적으로 제시되지 않도록 설문지에서 무작위로 주어졌고, 피실험자들은 이들 문장을 읽고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각각의 문장 아래 주어진 두 개의 문항 ‘맞음’과 ‘틀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함으로써 문법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⁴⁾ 만약 피실험자가 내핵 관계절의 존재를 용인하는 경우라면 주어와 직접 목적어가 관계화된 (7a)와 (7b)의 실험 문장에 대해 ‘맞음’을 선택하고, 간접 목적어와 사격 목적어가 관계화된 (7c)와 (7d)에 대해서는 ‘틀림’을 선택하는 것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피실험자가 내핵 관계절을 용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든 유형의 내핵 관계절에 대해 ‘틀림’을 선택하는 것이 예상되었다. 설문지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은 평균이나 빈도수와 같은 통계적 분석과 함께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표 2는 내핵 관계절의 문법성에 대해 바르게 판단을 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음을

4) 실험 문장들은 본 논문의 서론에서 제시된 내핵 관계절에 대한 의미-화용론적인 제한을 지키도록 구성하여 내핵 관계절에 대한 문법성 판단에 의미-화용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보여 준다 (69.36%).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문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어 내핵 관계절과 직접목적어 내핵 관계절을 맞는 문장으로 바르게 판단한 비율은 각각 평균 40.97%와 54.52%로 두 유형 모두 전체 평균 69.36% 보다 낮았다. 반면에 비문법적으로 여겨지는 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과 사격목적어 내핵 관계절을 틀린 문장으로 바르게 판단한 비율은 각각 97.42%와 84.5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는 또한 문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어 내핵 관계절과 직접목적어 내핵 관계절 사이에서는 직접 목적어 내핵 관계절을 주어 내핵 관계절보다 바르게 판단한 비율이 조금 더 높고 (54.52% vs. 40.97%), 비문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과 사격목적어 내핵 관계절 사이에서는 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을 사격 목적어 내핵 관계절보다 조금 더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97.42% vs. 84.52%).

표 2. 유형별 정답률

내핵 관계절의 유형	평균 정답률
주어의 관계화	2.05/5 (40.97%)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2.73/5 (54.52%)
간접목적어의 관계화	4.87/5 (97.42%)
사격목적어의 관계화	4.23/5 (84.52%)
합계	3.47/5 (69.36%)

유형별 내핵 관계절의 정답률은 그림 1처럼 표시해 볼 수 있다.

그림 1. 유형별 정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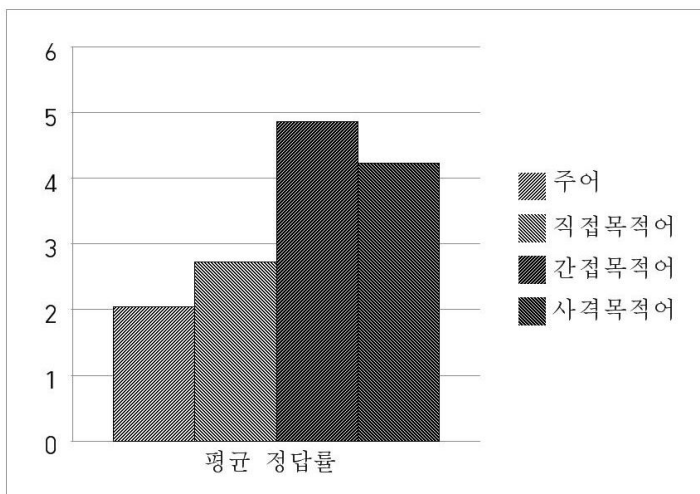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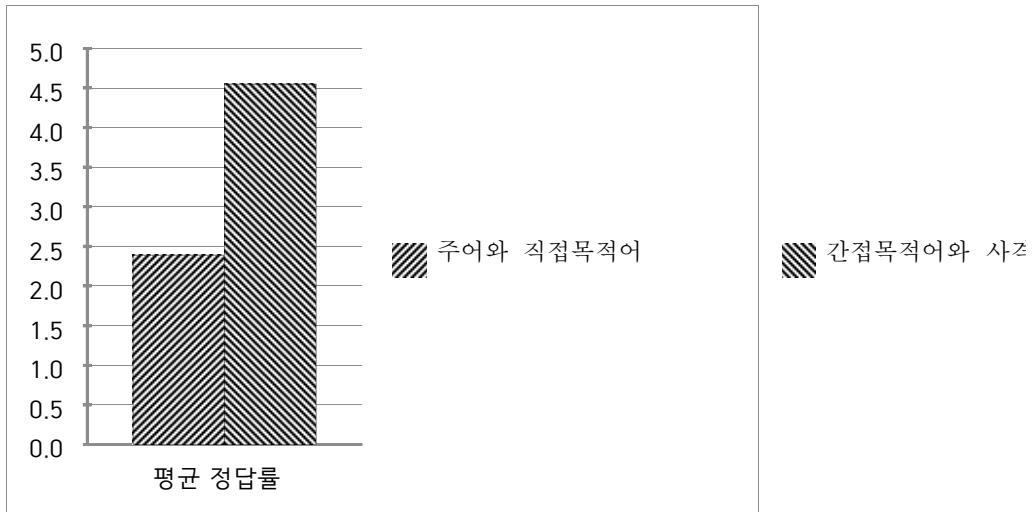
표 3은 내핵 관계절을 같은 문법성을 갖는 것끼리 두 유형으로 다시 나누었을 때, 이들 두 유형 사이에 문법성의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자세히 말하면,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가 관계화 된 비문법적인 내핵 관계절을 비문법적인 것으로 바르게 판단한 비율은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법적인 내핵 관계절을 문법적인 것으로 바르게 판단한 비율에 비해 현격히 높았다(90.97% vs. 47.74%).

표 3. 문법성에 따른 유형별 정답률

내핵 관계절의 유형	평균 정답률
문법적인 주어와 직접목적어의 관계화	2.39/5 (47.74%)
비문법적인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의 관계화	4.55/5 (90.97%)

문법성에 따른 유형별 정답률은 그림 2처럼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림 2. 문법성에 따른 유형별 정답률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은 내핵 관계절의 유형별 평균 정답률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F(3, 244) = 66.22539, p < 0.05$). 다시 말해, 문법성이 바르게 판단된 비율은 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격목적어 내핵 관계절이 높았으며, 직접목적어 내핵 관계절은 세 번째로 높았고, 주어 내핵 관계절은 바르게 판단된 비율이 가장 낮았다(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 > 사격목적어 내핵 관계절 > 직접목적어 내핵

관계절 > 주어 내핵 관계절).

또한 대응표본 T-검정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은 문법적인 주어 내핵 관계절과 직접목적어 내핵 관계절 유형과 비문법적인 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과 사격목적어 내핵 관계절 유형의 사이의 평균 정답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1, 61) = 61$, $p < 0.05$). 즉, 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과 사격목적어 내핵 관계절은 주어 내핵관계절과 직접목적어 내핵 관계절보다 바르게 판별한 비율이 훨씬 더 높다.

4. 결론

내핵 관계절에 대한 문법성 판단 실험 연구는 한국인 성인들이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의 문법성에 대해 바르게 판단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69.36%), 이것은 한국인에게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의 존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문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내핵 관계절에 대한 바른 판단 비율이 50% 이하인 것은 한국어에서의 내핵 관계절의 존재가 매우 제한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인 용인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것과 비문법적인 내핵 관계절을 잘 구별해 판별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한국어 내핵 관계절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주어와 직접목적어가 관계화 된 문법적인 내핵 관계절 유형에 비해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가 관계화 된 비문법적인 내핵 관계절 유형의 문법성에 대한 바른 판단 비율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는데(평균 47.74% vs. 평균 90.97%), 이것은 내핵 관계절에서 핵어명사로 선택되는 문장 요소들 사이의 우선 순위가 Keenan과 Comrie(1977)가 제안한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oun Accessibility Hierarchy: NPAH)'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는 문장 요소들 사이의 관계화의 위계를 설명하는 관계절과 관련된 언어 보편적 가설로, 이에 따르면 문장 요소들은 '주어 > 직접목적어 > 간접목적어 > 사격목적어 > 소유격 목적어 > 비교급 목적어'의 순서로 관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에서 주어나 직접목적어와 같이 왼쪽에 위치한 문장 요소일수록 관계절에서 핵어명사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고, 소유격 목적어나 비교급 목적어처럼 오른쪽에 위치한 문장 요소일수록 핵어명사로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내핵 관계절의 문법성에 대한 판단 비율을 관계화에 있어서 핵어명사로의 선택 비율로 바꾸어 보면 표 4에서처럼, 주어와 직접목적어는 핵어명사로 선택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40.97% & 54.52%)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는 핵어명사로 선택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 (2.58% & 15.48%)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에서 제시된

주어와 직접목적어는 핵어명사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비해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는 핵어명사로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4. 핵어명사로의 선택률

문장 요소	평균 선택률
주어	2.05/5 (40.97%)
직접목적어	2.73/5 (54.52%)
간접목적어	0.13/5 (2.58%)
사격목적어	0.77/5 (15.48%)

다시 말해, 이것은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도 Keenan과 Comrie(1977)의 관계절과 관련된 언어 보편적인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의 가설을 따르고, 이 가설이 제한하는 것처럼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에서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는 핵어명사로 잘 선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핵어명사의 선택에 있어서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의 낮은 선호도가 이들이 핵어명사로 사용된 간접목적어 내핵 관계절과 사격목적어 내핵 관계절의 대부분을 비문법적인 것으로 빠르게 판단하게 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내핵 관계절에서 핵어명사로 선택되는 문장 요소들 사이의 우선 순위는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가 보여주는 문장 요소들 사이의 순서와 정확히는 일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내핵 관계절에 대한 이번 연구 결과는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에서와 달리 직접목적어가 주어보다 더 쉽게 핵어명사로 선택되었고, 사격목적어가 간접목적어보다 더 쉽게 핵어명사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완전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의 언어 보편성 검증을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를 대상으로 제2언어 습득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며⁵⁾ 주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는 결과를 보여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를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roteau, 1995; Doughty, 1991; Gass, 1979; Hawkins, 1989; Hyltenstam, 1984; Mellow, 2006). 그러나 최근의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와 같이 관계절이 핵어명사를 선행하는 언어를 가진 비유럽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유럽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달리 반드시 직접목적어에 대한 주어 선호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제2언어로서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습득 연구는 주어가 목적어보다 선호되는 결과

5) Keenan과 Comrie(1977)가 제한한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oun Accessibility Hierarchy: NPAH)는 Eckman(1977)에 의해 제2언어의 습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가설로 제안되었고 이후 제2언어 습득 분야의 연구에 적용되었다.

를 보여준 반면에 (Hasegawa, 2005; Kanno, 2000, 2001; Sakamoto & Kubota, 2000), 다른 연구는 주어와 직접목적어 보다 쉽지 않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Tarallo & Myhill, 1983; Ozeki & Shirai, 2007). 이와 비슷하게 한국어 관계절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지금까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어 관계절이 직접목적어 관계절 보다 쉽게 습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가 있는 반면에 (Jeon & Kim, 2007; Lee, 2005; O'Grady, Lee, & Choo, 2003), 직접목적어가 주어에 비해 습득이 더 쉽다는 결과도 있었다 (김성수, 2010; 한병수, 2009; Kweon & Lee, 2008).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직접목적어 관계절이 주어 관계절에 비해 습득이 더 쉽다는 결과가 있었다 (Mathews & Yip, 2002).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의 습득에 있어서도 주어와 직접목적어의 불균형이 반드시 존재한 것은 아니다. 주어 내핵 관계절이 직접목적어 내핵 관계절에 비해 쉬운 결과가 있었던 반면에 (Cho, 1996),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 (Jeon & Kim, 2007). 그리고 간접목적어와 사격목적어 사이에서도 비유립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그 위계 순서가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에서 보이는 위계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oberts, 2000; Tarallo & Myhill, 1983).

본 논문은 그동안 한국어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던 내핵 관계절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한국어에서 내핵 관계절은 그 존재가 제한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을 밝힌 것과 주어와 직접목적어만이 관계화가 허용이 되는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의 존재 양상이 언어보편성에 근거한 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NPAH)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실험에 사용된 문장이 실제 사용되는 내핵 관계절로 구성된 것이 아니어서 연구에서 나타난 내핵 관계절의 용인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들 수 있고 또 내핵 관계절의 존재 양상을 일반적인 한국어 내핵 관계절의 존재 양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후의 실험에서는 문어와 구어에서 실제 사용되는 내핵 관계절을 조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어의 내핵 관계절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성수. (2010). *유형적 보편성을 통해 본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사용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숙영. (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계절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5, 31-68.
- 한병수. (2009). *한국어 학습자의 관계절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an, C., & Kim, J-B. (2003). Differences between externally and internally

- headed relative clauses constructions. *The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PSG*, 43-65.
- Cho, S. (1996). The acquisition of Korean head-internal relative clauses by Korean-English bilingual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Department of Linguistics in University of Hawaii*, 1-12.
- Croteau, K. C. (199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 structures by learners of Italian. In F. R. Eckman, D. Highland, P. W. Lee, J. Mileham, & P. R. Weber (Ed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and pedagogy* (pp. 115-128), NJ: Erlbaum.
- Doughty, C. J. (1991). Second language instruction does make a difference: Evidence from an empirical study of SL relativization. *SSLA*, 13, 431-469.
- Eckman, F. R. (1977). Markedness and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Language Learning*, 27, 183-95.
- Gass, S. M. (1979). Language transfer and universal grammatical relations. *Language Learning*, 29, 327-344.
- Hasegawa, T. (2005). Relative clause production by JSL children. In M. Minami, H. Kobayashi, M. Nakayama, & H. Sirai (Eds.), *Studies in language sciences, 4: Papers from the Forth Annual Conference of the Japanese Society for Language Sciences* (pp. 189-204). Tokyo: Kurosio.
- Hawkins, R. (1989). Do second language learners acquire restrictive relative clauses on the basis of relational or configurational information? The acquisition of French subject, direct object and genitive restrictive relative clauses by second language learners. *Second Language Research*, 5, 158-188.
- Hyltenstam, K. (1984). The use of typological markedness condition as predicto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case of pronominal copies in relative clauses. In R. W. Anderson (Ed.), *Second language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p. 39-60). MA: Newbury House.
- Jeon, K., & Kim, H. (2007). Development of relativization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9, 253-276.
- Jhang, S. (1994). Headed nominalizations in Korean: Relative clauses, clefts, and comparat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 Kanno, K. (2000). Sentence processing by JSL learner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2000, Madison, WI.
- Kanno, K. (2001). On-line processing of Japanese by English L2 learners.

- Dainigenngo-tositeno Nihongo-no Syuutoku Kenkyuu* ('Acquisition of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4, 23-38.
- Keenan, E., & Comrie, B. (1977). Noun phrase accessibility and Universal Grammar. *Linguistic Inquiry*, 8, 63-99.
- Kim, Y-B. (2000). Relevancy i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언어학*, 27(1), 21-43.
- Kim, Y-B. (2002). Relevancy in Internally-Hea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a*, 112(7), 541-559.
- Kuroda, S. Y. (1976). Headed Relative clauses in Modern Japanese and the Relevancy condition.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Society (BLS) II*, 269-279.
- Kweon, S., & Lee., D. (2008). Processing constrains on relative clauses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tudies in Modern Grammar*, 51, 129-152.
- Lee, K. (1991). *On the first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The universal structure of COM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Lee, S. (2005). Relative clauses and subject-drop in KSL learners' writing: sentence processing approach. *Language Research*, 41, 405-435.
- Matthews, S., & Yip, V. (2002). Relative clauses in early bilingual development: Transfer and universals. In A. Giacalone Ramat (Ed.), *Typology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39-81). Berlin: Mouton de Gruyter.
- Mellow, D. (2006). The emergence of second language syntax: A case study of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Applied Linguistics*, 27, 620-644.
- O'Grady, W., Lee, M., & Choo, M. (2003). A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 433-448.
- Ozeki, H., & Shirai, Y. (2007). The consequences of variation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An analysis of longitudinal production data from five Japanese children. In Y. Matsumoto, D. Oshima, O. Robison, & P. Sells (Eds.), *Diversity in language: Perspectives an implications* (pp. 243-270). CA: CSLI Publications.
- Roberts, M. (2000). *Implicational markedness and the acquisition of relativization by adult learners of Japanese as a fore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nolulu.
- Sakamoto, T., & Kubota, S. (2000). Nihongo no kankeisetu no syuutoku ni tuite

(‘On the acquisition of Japanese relative clauses’). *Nanzan-Daigaku Kyoiku Sentaa Kiyoo* (*The Bulletin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Nanzan University*), 1, 114-126.

Tarallo, F., & Myhill, J. (1983). Interference and natural languag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33, 55-76.

Whitman, J. (1990). A note on internally headed relative clauses. Unpublished manuscript.

부록

<한국어 문장에 대한 지식 테스트 설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과목의 담당교수입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 어떠한 '모국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수업 중 잠시 쉬어가는 코너라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이 다 끝나면 이 설문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의 '한국어 지식'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언어교육 목적 이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1. 여러분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 1) 남 2) 여

2. 여러분의 연령대를 선택해주세요.

- 1) 20세 이하 2) 21세-30세 3) 31세-40세 4) 41세-50세 5) 51세 이상

3. 여러분의 학년을 선택해주세요 (3학년 편입의 경우 3학년으로 시작).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4. 여러분의 전공을 선택해주세요.

- 1) 인문사회계열 2)자연계열 3)공과계열 4)예체능계열

5. 여러분의 최종 학력수준을 선택해주세요.

-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졸업 및 중퇴 (전문대 포함) 3) 대학원 졸업 및 중퇴 (석사 및 박사)

다음부터는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별하세요. 그럼 질문입니다.

1. 영화는 휴지가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2. 수지는 강아지가 큰 길로 달려가는 것을 붙잡았다.
3. 민희는 동료들이 불펜을 덜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모았다.
4. 선생님은 학생이 만화책을 읽고 있는 것을 빼앗았다.
5. 엄마가 칼로 사과를 깎고 있는 것은 매우 날카롭다.
6. 엄마가 바늘로 양말을 꿰매고 있는 것은 조금 녹슬어 있다.
7. 강호는 개장수가 개를 잡아가려는 것을 구해 주었다.
8. Daniel이 여자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준 것은 영어 이름이 Beth이다.

9. 정희가 빗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것은 참빗이다.
10. 아빠가 영희에게 새 옷을 사주신 것은 매우 기뻐했다.
11. 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간 것은 배관공이다.
12.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한 것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다.
13. 풀키퍼는 상대방이 공을 찬 것을 잘 막아 내었다.
14. 영희는 엄마가 김밥을 만들어 주신 것을 맛있게 먹었다.
15. 소녀가 머리줄로 머리를 묶고 있는 것은 라텍스 고무줄이다.
16. 순이는 사과가 잘 익은 것을 샀다.
17. 민희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빨간색이다.
18. 진수는 컴퓨터가 고장 난 것을 고쳤다.
19. 남자가 여자에게 말할 건 것은 아름다운 긴 머리를 하고 있다.
20. 철수는 스테이크가 접시에 있는 것을 먹었다.

조수근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6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영어학과

우편번호: 110-800

전화: 82-2-6361-1929

E-mail: sookeunc@cyberkorea.ac.kr

Received on March 31,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y 19, 2014

Accepted on May 30, 2014